

#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노인의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아존중감과 직무만족을 중심으로

Factors that Influence Social Relations in Elderly People Participating in the Senior Employment Project: Focusing on the Job Satisfaction and Self-esteem

유용식

세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Yong-Shik Yoo(yoos@semyung.ac.kr)

##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노인의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노후의 사회적 관계 증진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임의표집방법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에 1년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노인 272명을 대상으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직무만족은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노인의 사회적 관계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노인의 자아존중감, 직무만족이 높일수록 사회적 관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정책제언을 하면, 첫째, 노인의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및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둘째, 노인들의 직무만족을 높일 수 있는 근로자성의 인정, 사업유형 및 분야의 다양화,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공적·비공식적 지원체계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 중심어 : | 노인일자리 사업 | 사회적 관계 | 자아존중감 | 직무만족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factors influencing social relations in elderly people participating in the Senior Employment Project and explore ways to improve their life quality by promoting the enhancing social relations in old age based on that. To attain the study goal, this researcher conducte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272 elderly persons having experience to participate a senior employment project selected through random sampling. According to the findings, elderly people's internal factors, self-esteem and external factor, job satisfaction, influence social relations in elderly people participating in the Senior Employment Project significantly. In other words, if elderly people participating in the Senior Employment Project have higher self-esteem, and job satisfaction, their social relations are better. Based on the results, this author provides political suggestions as follows: first, it is needed to develop policies and programs that can enhance elderly people's self-esteem. Second, it is necessary to acknowledge their worker's status, diversify business types and areas for them, and improve their labor conditions so that elderly people can show higher job satisfaction. Third, it is needed to develop both official and non-official support systems and build networks to form new social relations.

■ keyword : | Senior Employment Project | Social Relations | Self-esteem | Job Satisfaction |

\* 이 논문은 2015학년도 세명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연구임.

접수일자 : 2016년 02월 29일

심사완료일 : 2016년 03월 28일

수정일자 : 2016년 03월 28일

교신저자 : 유용식, e-mail : yoos@semyung.ac.kr

## 1.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노인에게 있어 소득은 삶의 질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조건이며, 일은 이런 기본조건을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들의 고용문제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노인은 생산성 저하라는 고정관념 등으로 인해 우리사회는 노인 인력활용을 기피하거나 등한시하는 경향이 만연해 있다.

Neugarten(1961) 등에 의하면 삶에 대한 사기와 만족감 등은 은퇴한 노인보다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노인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직장인들이 은퇴자들보다 대부분 사회경제적 지위가 더 높고 건강과 사회적 관계가 더 좋다는 사실 때문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노인에게 고용의 지속성은 젊은이들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1].

대다수 노인들은 건강하고 일할 능력과 일에 대한 의욕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년퇴직 등으로 직장을 떠나게 되면 과거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익숙한 업무에서 손을 놓게 되고 적극적인 사회참여에서도 물러나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2].

최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년기가 연장됨에 따라 은퇴가 아니라 재고용이라는 사회적 인식과 더불어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노년기에 일을 통한 경제활동은 생계유지라는 목적 외에도 사회적 관계 증진,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많은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정부에서도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사회적 관계는 인간발달 모든 단계에서 중요하지만 특히 노인들에게 중요한데, 그러한 이유는 직장에서의 은퇴, 배우자의 죽음 등 노년기에 겪는 여러 가지 변화를 성숙하게 맞이하기 위해서이다[3]. 또한 나이가 들수록 사회참여 및 사회적 역할 축소 등으로 인해 외로움, 고독, 소외감 등이 점점 더 심해지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지지와 격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업화, 현대화, 고령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우리나라 노인들의 사회적 관계는 크게 약화되었다.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4명 중 1명은 고립상태에 있으며, 노인 11%는 단체참여, 봉사활동 등 사회적 활동과 지원이 없는 완전고립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

반면, 우리나라에서 장수하는 10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장수하는 노인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친구, 이웃, 가족, 친척 등과 사회적 관계를 하며 살아간다는 것이다[5]. 이러한 사회적 관계는 타인의 기대와 자원의 감소, 그리고 동일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감소로 인해 대인관계가 축소되는 노년기에 사회적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노인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6], 노인의 사회적 관계는 개인적 차원에서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고, 사회적 차원에서도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통합과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 제고 등 양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유의미한 가치를 창출한다고 하였다[7].

선행연구에서 노인의 건강, 행복, 만족감 등은 노인의 친구관계, 이웃관계, 지역사회관계가 중요한 요인이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회관계는 노인의 삶에서 더욱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이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유지 및 성공적 노화와 필수적인 관계가 있다[5][8-10].

이러한 이유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일을 하고 있는 노인의 사회적 관계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실질적인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나아가 노인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나, 지금까지의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 선행연구들은 참여자의 삶의 질[11-13], 생활만족도[11][14], 직무만족 및 직무성취[15-17] 등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노인일자리 사업에서의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노인의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노후 사회적 관계 증진 통해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배경

### 1. 노인일자리 사업

노인일자리 사업의 목적은 노인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2015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총 33만 7천개의 일자리·사회활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제공되는 사업이다. 국비와 지방비를 합산한 총 예산은 6,187억 원 규모이고, 재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50:50 매칭방식으로 마련한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내용은 [표 1]과 같다. 노인사회활동은 공익활동과 재능나눔활동으로 구분되며, 공익활동이 26만 3천개로 가장 많은 비중(78%)을 차지하고, 재능을 보유한 노인에게 재능나눔활동 기회를 부여하는 재능나눔활동에 3만 7천개(11%), 공동작업, 제조판매, 인력파견, 고령자 친화기업 등을 포함하는 시장형(취창업) 활동에 3만 5천개(10%)의 일자리가 마련되어 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기간은 노인사회활동의 공익활동과 재능나눔활동은 9-12개월, 시장형은 연중 가능하며, 노인사회활동은 월 2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게 된다[18].

표 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내용[18]

| 구분       | 유형           | 예산지원       | 활동성격         |    |
|----------|--------------|------------|--------------|----|
| 노인 사회 활동 | 공익활동         | 자치단체       | 자원봉사         |    |
|          | 재능나눔활동       | 민간<br>경상보조 |              |    |
| 노인 일자리   | 시장형<br>(취창업) | 시장형        | 자치단체<br>경상보조 | 근로 |
|          |              | 인력파견형      | 자치단체<br>경상보조 |    |
|          |              | 시니어인턴십     | 민간<br>경상보조   |    |
|          |              | 고령자친화기업    | 민간<br>경상보조   |    |

### 2. 노인의 일과 사회적 관계

일은 인간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일이 삶의 만족에 중요한 기여임을 보여준다[7]. 다양한 사회자원 중에서 노인의 일은 노후생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회적 자원이다. 노인들의 일

은 노인 스스로 경제력을 가짐으로써 자녀들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또한 노인의 자아실현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2].

사회적 관계라는 용어는 사회적 지지와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며[19], 개인에게 지지와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그의 전반적인 삶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개념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20].

Litwin(1996)은 사회적 관계를 개인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소속감 또는 물리적 도움을 주는 사람들 사이의 유대를 의미한다고 하였다[21]. Knoke 외(1982)는 사회적 관계는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관계망이라 볼 수 있으며, 사회 속에서 개인은 자연적으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생활한다. 사회적 관계는 개인이나 집단, 또는 조직에서 맺는 관계를 의미하며, 이러한 관계를 파악하는 일은 잠재적 수준의 사회현상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고 하였다[22].

일과 사회적 관계는 다양한 측면에서 개인의 삶의 질, 안녕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노인의 삶에서 일과 사회적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노년기에 일과 사회적 관계는 중요한 자원이며 가족, 이웃, 동료와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물질적, 비물질적 지원을 받고, 사회적 지지를 통해서 신체적, 심리적 안녕감을 가질 수 있으며, 인간관계를 통해 세상과 연결되고 노년기의 정체감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23].

노인의 일과 사회적 관계의 분석을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관계는 구조와 기능으로 구분한다[24]. 사회적 관계의 구조는 크기, 밀도, 기간, 유형, 접근가능성, 접촉빈도수, 안정성 등을 말하며, 사회적 관계의 기능은 관계의 구성원에게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5].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관계의 구조에서 크기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동안의 사회적 관계 안에서 실제 접촉한 사람들을 말한다. 유형은 사회적 관계를 이루는 구성요소를 말하는 것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친밀한 관계유지 및 도움을 주고받는 친구나 이웃 등의 비전문적인 관계와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며

생활상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노인일자리 사업 전문기관을 말한다. 사회적 관계의 기능에서 사회적 지지는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노인들에게 정서적·심리적·물질적·정보적인 지지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관계의 구조와 기능을 중심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노인의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 3. 선행연구

#### 3.1 노인일자리 사업과 사회적 관계

김미곤(2006)은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노인 85.9%가 사회적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26], 함철호·오혜연(2010)은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여부에 따른 응답자의 사회적 관계 크기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관계의 접촉빈도에 있어서 참여노인이 비참여노인보다 높게 나타났고, 사회적 관계 지지기능에서 참여노인이 비참여노인보다 좋은 것으로 나타났[27].

Olsen 외(1991)는 노인의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친구는 신체적 건강과 관련이 있고 친구와의 빈번한 접촉이 정신적 건강과도 관련이 있어 친구 및 이웃과의 사회적 관계망의 중요함을 강조했다[28]. Bloom(1990)은 사회적 관계는 인간의 기본 욕구인 소속감을 충족시키며, 개인의 건강증진을 통해 일과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29]. 박경숙(1998)은 사회적 관계가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정도를 서열화하였는데 그중에서 지역 사회와 연계를 유지하는 노인, 취업생활을 유지하는 노인이 순위에 올라 노인에게서 일과 사회적 관계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30].

이소정(2013)은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노인이 비참여노인에 비해 비공식적 사회관계보다 공식적 사회관계가 더욱 강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인한 효과로 분석되었고,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주관적 친구이웃관계와 친구이웃 상호작용 변인 등의 사회관계 변수들은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와 삶의 질을 매개하는 변인들임을 확인하였다[7].

장신재·조자영(2014)은 사회관계는 노인일자리 사업

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결과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사회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많은 투입을 요구하지 않고도 효과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다[12].

#### 3.2 노인일자리 사업과 자아존중감(자기효능감)

Gill 외(1994)는 노인들이 일 등을 통해 신체활동이 활발한 경우 자기효능감이 높아지고 이로 인하여 행복감이 향상되며 자신감은 각자의 이미지, 성격향상 및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 Gordon 외(1995)는 일과 훈련을 통하여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주어진 일이나 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32].

김은희·이종한(2005)은 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은 유의미하게 나타나 서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33], 민순 외(2008)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므로 자아존중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들에게 소정의 수익을 통해 용돈이나 기초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받게 된 것이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34].

하춘광·김효순(2009)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참여만족도가 높은 노인일수록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참여만족과 생활만족도에 부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35].

허준수(2011)는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노인의 자아효능감의 차이를 비교해본 결과 성별과 정신적 건강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36], 임은의 외(2014)는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은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과 자아존중감은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37].

#### 3.3 노인일자리 사업과 직무만족

Bandura 외(1989)는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행동이나 성과 달성에 주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직무만족과 관련성을 지닌다. 이는 자기효능감이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라는 점에서 개인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38]. 박경하(2008)는 노인의 일자리 사업 참여는 참여효과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직무만족도를 매개한 간접적인 영향력도 정적으로 나타나,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를 통한 직무만족 수준이 높을수록 참여효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6].

윤석경·권정만(2010)은 노인일자리 사업에서의 직무만족도는 전반적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간접적 영향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직무만족은 일자리 자체의 내용적 측면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노인일자리 전반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7]. 박용두·정민숙(2013)은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셀프리더십의 하위 요인 중 자연적 보상전략과 임파워먼트의 하위 요인 중 의미성, 역량, 영향력이 직무만족을 매개하여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5].

이처럼 선행연구에서 보듯이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노인의 사회적 관계, 자아존중감, 직무만족에 대한 각각의 선행연구는 일부 있으나,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노인의 자아존중감 및 직무만족이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기에 본 연구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모형은 [그림 1]과 같이 독립변수로 자아존중감과 직무만족, 종속변수로 사회적 관계를 그리고 통제변수는 노인일자리 참여노인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유무, 건강상태, 경제상태로 구성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첫째, 노인일자리 사업의 참여노인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사회적 관계의 정도가 높을 것이다. 둘째, 노인일자리 사업의 참여노인의 직무만족이 높을수록 사회적 관계의 정도가 높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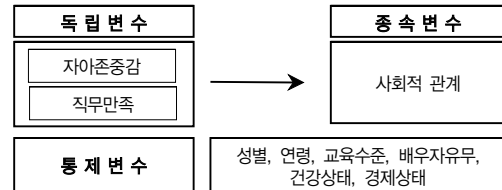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대상은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노인의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충청북도 제천시에 거주하는 노인으로서 노인일자리 사업에 1년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노인(1년 미만의 대상자는 사회적 관계의 상태, 지속성, 효과성 등을 제대로 파악 할 수 없기에)으로, 본 연구목적에 이해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허락한 응답자로 하였다. 조사기간은 2014년 6월 23일부터 7월 25일까지 5주간 실시하였으며, 총 300부를 조사하였으나 부실 기재된 28부를 제외한 272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표집방법은 비확률 표집 중 임의표집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자료수집 방법은 노인일자리 사업 기관에 조사에 대한 협조요청이나 협조안내문을 발송하여 조사를 허락한 대상자에게 자기기입식(self-report) 설문조사 방법과 글을 읽을 수 없는 노인들은 본 연구자 및 교육받은 5명의 조사원들이 설문문항을 한 문항씩 읽으면서 기입하는 면접형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 3. 측정도구

##### 3.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사회적 관계는 다양한 자원과 서비스를 주고받을 수 있고, 실제로 접촉하고 상호작용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사회적 관계 척도는 Social Support Appraisals Scale(SSA)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사람으로부터의 사회적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원칙도는 Vaux et al(1986)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배지연(2005)[39]이 번역한 총 20문항에서 2문항(존중받는 느낌과 친구관계)은 중복이 되어 제외하고 총 18문항을 사용하였다. 응답은 1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 '매우 그렇다'의 Likert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관계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Cronbach Alpha 값은 .925로 나타났다.

### 3.2 독립변수

#### 3.2.1 일반적인 특성

일반적인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유무, 건강상태, 경제상태 등을 살펴보았다.

#### 3.2.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스스로를 존경하고 바람직하게 여기며 가치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정도로,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과 같은 의미로 정의하고자 한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Rosenverg(1965)가 개발하여, 김계하(2005)[40]가 사용한 7문항 척도에서, 일과 관련된 문항이 직무만족 척도와 중복되기 때문에 한 문항을 삭제하여 총 6문항을 사용하였다. 응답은 1 '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5 '매우 그렇다'의 Likert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Cronbach Alpha 값은 .790으로 나타났다.

#### 3.2.3 직무만족

직무만족은 직무에 대한 개인의 태도로 직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한 긍정적인 감정 상태라고 정의하였다[15]. 직무만족 척도는 윤혜미(1991)[41], 설진화(1999)[42]등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지은숙(2010)[43]이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문항이 중복되는 3문항(직무, 급여, 동료에서 각 1문항)을 제외한 총 21문항을 사용하였다. 응답은 1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 '매우 그렇다'의 Likert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Cronbach Alpha 값은 .895로 나타났다.

## 4. 자료분석 방법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노인의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한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

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 평균차이분석, 상관관계분석,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과 사회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주는 주요변인들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여 사회적 관계와의 관련성과 다중회귀분석의 전제조건으로 독립변인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관계를 설명함에 있어서 개별변수의 영향력과 함께 사회적 관계와 관련된 영향 변인들을 변수 군으로 순차적으로 투입하는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것은 변수들을 순차적으로 투입하여 모델의 적합도·설명력·유의미성·변수의 영향력 변화를 함께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통계분석에는 SPSS 20.0을 활용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노인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여성이 169명(62.1%), 남성이 103명(37.9%)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76-80세 이하가 111명(40.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71-75세 이하 101명(37.1%), 65-70세 이하가 33명(12.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연령은 75.7세이다.

교육수준은 초등학교졸업이 125명(46.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무학이 62명(22.8%), 중학교졸업과 고등학교졸업이 각각 40명(14.7%) 순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유무는 배우자유가 140명(51.5%)으로 배우자유 132명(48.5%) 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건강상태는 보통이 136명(50.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좋음 55명(20.2%), 나쁨 44명(16.2%), 매우 좋음 26명(9.6%)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상태는 보통이 137명(50.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나쁨 94명(34.6%), 매우나쁨 30명(11.0%), 좋음 9명(3.3%) 순으로 나타났다.

2.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1 사회적 관계 관련 요인 간의 상관관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노인의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각 주요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상관관계 분석결과 최종결과 변수인 사회적 관계의 경우는 직무만족( $r=.596, p<.001$ )과 가장 큰 정적관계를 보였으며, 자아존중감( $r=.413, p<.001$ ) 또한 유의한 정적관계를 보이고 있다. 직무만족의 경우도 자아존중감( $r=.391, p<.001$ )과 유의미한 정적관계를 보이고 있다.

표 2. 사회적 관계 관련 요인 간의 상관관계

| 변수     | 자아존중감   | 직무만족    | 사회적 관계 |
|--------|---------|---------|--------|
| 자아존중감  | 1       |         |        |
| 직무만족   | .391*** | 1       |        |
| 사회적 관계 | .413*** | .596*** | 1      |

\*\*\* $p<.001$

2.2 사회적 관계의 영향요인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노인의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살펴보기 위하여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 다중공선성 통계량인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IF)의 크기를 살펴보았다.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에서는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두 변수 간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596으로 나타났고, 모든 변수에서 공차한계는 .10보다 높게 관찰되었으며, 분산팽창요인도 최대치가 1.618인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으로 인해 분석모형이 왜곡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노인의 사회적 관계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서 일반적인 특성, 자아존중감과 직무만족의 변수를 구분하고, 이를 순차적으로 투입하면서 각 단계별 모형 전체의 설명력 변화와 변수추가에 따른 추가적인 설명력 변화 정도 및 유의미성, 추가

되어지는 변수의 유의미성과 영향력을 중심으로 사회적 관계의 영향요인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1단계 모형은 일반적인 특성, 2단계 모형은 일반적인 특성 및 자아존중감, 3단계 모형은 일반적인 특성, 자아존중감과 직무만족을 투입하여 이전 단계 모형과의 비교를 통해 변수가 새로 투입되면서 나타나는 모형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먼저 1단계 모형을 보면, 모형 전체로써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F=3.613, p<.001$ ), 사회적 관계 전체 변량의 약 7.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2=.076$ ). 1단계 모형에 투입된 변수 중 성별( $t=2.602, p<.05$ )과 건강상태( $t=1.918, p<.05$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유무, 경제상태는 통계적인 유의미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성별에서는 남성 그리고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사회적 관계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1단계 모형에 노인의 자아존중감을 투입한 2단계 모형은 모형 전체로써 유의미한 모형으로 나타났고( $F=15.592, p<.001$ ), 사회적 관계 전체 변량의 약 32.2%를 설명하고 있다( $R^2=.322$ ). 1단계 모형에 자아존중감을 투입한 2단계 모형은 일반적인 특성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에도 새로 투입된 자아존중감을 통해 사회적 관계의 변량 중 약 32.2%를 추가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F \text{ Change}=47.708, p<.001, R^2 \text{ Change}=.246$ ). 2단계 모형에서 일반적 특성인 성별,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건강상태, 경제상태 모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 모형에서는 2단계 모형에서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한 직무만족을 투입하였으며, 3단계 모형은 모형 전체로써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관찰되었고( $F=22.537, p<.001$ ), 사회적 관계 전체 변량의 약 43.6%를 설명하고 있다( $R^2=.436$ ). 직무만족을 추가적으로 투입한 3단계 모형은 일반적인 특성, 자아존중감, 직무만족을 통제한 후에도 사회적 관계 전체 변량의 약 43.6%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 \text{ Change}=53.293, p<.001, R^2 \text{ Change}=.115$ ).

3단계 모형에서도 일반적인 특성은 모두 무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 $t=2.925, p<.001$ )과 새로 투입된 직무만족( $t=7.300, p<.001$ )은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존중감 및 직무만족이 높을수록 사회적 관계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표 3. 사회적 관계의 영향요인

| 단계                    | 1단계      |         |       | 2단계       |         |          | 3단계       |         |          |       |
|-----------------------|----------|---------|-------|-----------|---------|----------|-----------|---------|----------|-------|
|                       | B        | $\beta$ | t     | B         | $\beta$ | t        | B         | $\beta$ | t        |       |
| 일반적 특성                | 더미성별     | .230*   | .192  | 2.602     | .091    | .076     | 1.180     | .055    | .046     | .618  |
|                       | 연령       | .001    | .008  | .131      | -.003   | -.021    | -.386     | -.006   | -.040    | .780  |
|                       | 교육수준     | -.023   | -.041 | -.608     | -.017   | -.029    | -.503     | .023    | .041     | -.824 |
|                       | 더미배우자유무  | -.010   | -.008 | -.129     | -.006   | -.005    | -.091     | .006    | .005     | .754  |
|                       | 건강상태     | .087*   | .140  | 2.279     | .014    | .022     | .408      | .001    | .002     | .092  |
|                       | 경제상태     | .089    | .116  | 1.918     | .016    | .080     | 1.520     | .058    | .076     | 1.571 |
| 자아존중감                 |          |         |       | .199      | .245    | 4.342*** | .126      | .155    | 2.925*** |       |
| 직무만족                  |          |         |       |           |         |          | .538      | .422    | 7.300*** |       |
| F Change              | 3.613*** |         |       | 47.708*** |         |          | 53.293*** |         |          |       |
| F                     | 3.613*** |         |       | 15.592*** |         |          | 22.537*** |         |          |       |
| R <sup>2</sup> Change | .076     |         |       | .246      |         |          | .115      |         |          |       |
| R <sup>2</sup>        | .076     |         |       | .322      |         |          | .436      |         |          |       |

\* $p<.05$ , \*\*\* $p<.001$   
 \*더미변수의 기본 값은 더미성별 남자=0, 더미배우자유무=0

## V. 결론 및 제언

### 1.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노인의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노후 사회적 관계 증진 통해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직무만족은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노인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일반적인 특성 중 성별과, 건강상태가 사회적 관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여성보다는 남성,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사회적 관계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남성 노인들이 사회생활 경험 등으로 사회적 관계가 여성 노인보다 더 많은 결과로 사료된다. 또한, 건강상태가 좋아야 사회활동 및 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기에 건강상태와 사회적 관계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Bloom[29]의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둘째, 일반적인 특성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노인의 자아존중감은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노인의 사회적 관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의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관계 정도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무엇인가 사회에 공헌 할 수 있으며 본인의 활동이 가치가 있다는 느낌을 가지므로써 사회적 관계 정도가 더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일반적인 특성에 노인의 자아존중감을 통제한 상태에서 직무만족은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노인의 사회적 관계 정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른 요인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직무만족이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노인의 사회적 관계 정도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사회적 관계에서 노인의 자아존중감 보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한 직무만족이 노년기의 사회적 관계를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의 사회적 관계에서 자아존중감 증진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노인일자리 사업과 같은 일을 통하여 직무만족을 증진하면 노인들의 사회적 관계는 더욱 향상될 것이다.

연구결과에 따른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선행연구가 전무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노인의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일반적인 특성과 자아존중감 및 직무만족의 변인들도 범주화하여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본 것이다. 둘째, 다른 요인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에도 직무만족이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노인의 사회적 관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함으로써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노인의 사회적 관계의 중요함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는 것이다. 셋째,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노인들의 직무만족이 높을 경우 사회적 관계 또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노인의 일 및 취업활동이



내재적 관계성 추구와 더불어 실제 관계가 가져오는 중요성을 증명하였다는 것이다.

## 2. 제언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정책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일자리 사업에 여성 노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 확대 및 건강증진의 효과가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필요하다. 둘째, 노인일자리 사업이 노인들의 자아존중감을 더 강화할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 재능기부 등 다양한 실천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노인들을 위한 시혜적 차원의 복지가 아닌, 노인들이 일을 통한 직무만족을 높일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사업의 근로자성의 인정, 사업 유형 및 분야의 다양화, 현실성 있는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노인들에게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지원체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비공식적 지원체계의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들의 활발한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자아존중감의 증진과 경제적 활동으로 인한 직무만족 향상으로 이어져 노인의 삶의 질과 성공적인 노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을 더욱 활성화 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노인의 사회적 관계는 개인적·지역적·문화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본 연구는 체천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만을 표본으로 하여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좀 더 광범위한 지역표집으로 이를 검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비확률 표집방법을 사용하였기에 확률 표집에 기초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양적방법만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노인의 사회적 관계에 영향력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세부요인 분석과 심층적인 질적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1] B. Neugarten, R. Havighurst, and S. Tobin,

"The measurement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Vol.16, pp.134-143, 1961.

[2] 박석돈, 박순미, 이경희, 노인복지론, 경기: 양서원, 2013.

[3] 정순돌, "저소득 노인의 사회적 지원망 특성: 연결고리의 분석을 통한 탐색적 연구," 노인복지연구, 제24권, pp.7-29, 2004.

[4] 통계청, 2014 한국의 사회동향, 2014.

[5] 박상철, 웰에이징, 서울: 생각하는 나무, 2009.

[6] 전해정, 노년기 사회적 관계와 정신건강, 한국가정관리학회, 2003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가정관리전략 학술발표자료, 2003.

[7] 이소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가 노인의 사회관계에 미치는 효과 분석," 노인복지연구, 제59호, pp.331-354, 2013.

[8] 김동배,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화 척도개발을 위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60권, 제1호, pp.211-231, 2008.

[9] 백지은, 최혜경, "한국노인들이 기대하는 성공적인 노화의 개념, 유형 및 예측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5권, 제2호, pp.1-16, 2005.

[10] 성영혜, 유정현, "성공적 노화 개념의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제22권, 제2호, pp.75-93, 2002.

[11] 하경분, 주민경, 송선희,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 노인의 만족도와 생활만족도 및 삶의 만족도와와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10호, pp.160-170, 2014.

[12] 장신재, 조자영,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지지, 정서문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11호, pp.225-235, 2014.

[13] 장신재, 조자영,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일자리사업 참여만족, 경제상태만족, 자기가치감 변화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3호, pp.123-132, 2015.

[14] 정세희, 문영규, "노인일자리 참여노인의 생활만

- 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연구, 제14권, 제4호, pp.216-226, 2013.
- [15] 박용두, 정민숙,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셀프 리더십과 임파워먼트가 직무만족 및 직무성파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9호, pp.216-226, 2013.
- [16] 박경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인적자본, 사업참여 요인이 프로그램 참여효과에 미치는 영향: 직무만족의 매개효과 분석," 노인인력개발포럼, 창간호, pp.48-64, 2008.
- [17] 윤석경, 권정만, "노인일자리사업에서의 참여만족에 관한 연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제4권, 제2호, pp.31-54, 2010.
- [18] 보건복지부, 201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보건복지부, 2016.
- [19] 한경혜, 김주현, 김경민, "중년기 남녀의 사회적 관계망과 정신건강," 한국노년학, 제23권, pp.155-170, 2003.
- [20] 박영란, 박경순, "한국노인의 사회적 관계망과 복지," 노인복지연구, 제60권, pp.323-352, 2013.
- [21] H. Litwin, *The social network of older people*, Westport: Praeger Publishers, 1996.
- [22] D. Knoke and J. H. Kuklinski, *Network analysis*,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1982.
- [23] 박경숙, "한국 노인의 사회적 관계: 가족과 지역 사회와의 연계정도," 한국사회학, 제34권, pp.621-647, 2000.
- [24] P. Crotty and R. Kulys, "Social Support Networks," *Social Work*, Vol.30, No.4, pp.56-70, 1985.
- [25] P. A. Thoits, "Conceptual, methodological, and theoretical problems in studying social support as buffering against life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Vol.23, pp.183-190, 1982.
- [26] 김미곤, *노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분석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 [27] 함철호, 오혜연,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가 참여자의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제48호, pp.229-250, 2010.
- [28] O. Olsen, L. Iversen, and S. Sabroe, "Age and the Operationalization of Social Support," *Social Science and Medicine*, Vol.32, No.7, pp.767-771, 1991.
- [29] J. R. Bloom, "The relationship of social support and health," *Social Science and Medicine*, Vol.30, No.5, pp.635-637, 1990.
- [30] 박경숙, *한국노인의 사회적 관계*,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pp.339-349, 1998.
- [31] D. Gill, B. Kelley, K. Williams, and J. Martin, "The relationship of self-efficacy and perceived well-being to physical activity and stair climbing in older adults," *Research Quarterly for Exercise and Sport*, Vol.65, No.4, pp.367-371, 1994.
- [32] J. Gordon and W. Dowling, "Adult Learning on the Context of African-American Women's Voluntary Organiz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Vol.14, No.4, pp.306-319, 1995.
- [33] 김은희, 이종한, *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2005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pp.156-157, 2005
- [34] 민순, 주리에, 정현필, 정영주, 김미란, 김윤경, "일자리 참여 프로그램이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동서간호학연구지*, 제14권, 제2호, pp.32-38, 2008.
- [35] 하춘광, 김효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만족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제36권, 제4호, pp.393-414, 2009.
- [36] 허준수, "노인일자리사업과 노인자원봉사활동의 참여 노인들의 자아효능감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제14권, pp.89-128, 2011.
- [37] 임은의, 구분진, 임세현, "농촌 노인의 사회적 관

계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존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25권, 제2호, pp.567-590, 2014.

- [38] A. Bandura and R. E. Wood, “Effect of Perceived Controllability and Performance Standards on Self-Regulation of Complex Decision Mak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6, pp.805-814, 1989.
- [39] 배지연, *노인의 자살생각에 관한 인과모형*, 대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 [40] 김계하, *후천적 지체장애인의 건강관련 주관적 질 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 [41] 윤혜미,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직무만족, 이직의도, Burnout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18권, pp.83-116, 1991.
- [42] 설진화, “정신보건영역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도: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7권, pp.47-66, 1999.
- [43] 지은숙, *노인일자리 참여 노인의 직무만족도와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저 자 소개

유 용 식(Yong-Shik Yoo)

중신회원



- 2003년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석사)
- 2007년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관심분야> : 사회복지, 노인복지, 지역복지, 다문화복지